과학자 두 명과 예술가 한 명의 만남. 첫 느낌부터가 낯설다.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만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하지만 '황우석, 최재천, 김병종' 이란 이 시대 걸출한 학자들의 이름을 꺼내놓으면, 의심은 금세 호기심으로 바뀐다. 도대체 이들이 만나서 '무엇' 을 이야기했을까?

나의 생명 이야기
황우석 최재천 김병종 지음 | 1만1천원 | 효형출판

평생의 화두로 잡아온 '생명'. 최재천, 황우석, 김병종 교수(사진 왼쪽부터)는 '자연과 인간' 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한다.

세 과학자와 예술가 따로 또 같이 걷는 생명의 길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배양에 성공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개미 제국의 발견' 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생물학자로 꼽히는 최재천 서울대 생물과학부 교수, 베스트셀러 <화첩기행>을 내놓은 김병종 서울대 미대 교수가 '생명' 을 주제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나의 생명 이야기>다. '1953년생 촌놈 동갑내기' 들의 생명을 향한 열정, 또 그것이 이들의 학문적 화두라는 것을 고스란히 담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다. 황 교수와 최 교수는 인생역정의 고백과 함께 과학자로서 시대적 양심을 외쳤고, 김 교수는 이들의 글에 그림으로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럼 세 사람에게 생명이란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복제소 영롱이를 탄생시킨 황우석 교수의 생명관은 어릴 적에 키운 '소' 에서 비롯된다.

'내게 생명이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의 순한 눈망울, 봄이면 샛노란 솜털이 개나리보다 탐스러운 병아리, 암탉이 막 낳은 따뜻한 달걀, 그런 자연에 기대에 살아가던 내 부모형제와 이웃들…. 생명은 그런 것이다.'

이처럼 황 교수에게 생명은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다. 우리 곁의 구체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황 교수의 생명과학 연구의 바탕은 '자연과 사람' 이다. 그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인간에서 출발하고, 인간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심산(心山)' 이란 법명이 말해주듯 황 교수는 어릴 적부터 '마음의 산' 을 키우는 지혜를 소에게 배웠다. 마치 변함없이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산처럼, 그는 우직한 소를 닮으려했다. 대전고 첫 시험에서 480명 중 400등을 했을 때 곧바로 친구들과 '등 안대기 클럽' 을 결성해 졸업까지 방바닥에 등을 대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던 것도, 의대에 진학하라는 선생님에게 뺨까지 맞아가며 수의대를 택했던 것도, 소년 시절 가난했던 온 가족의 목숨줄이자 친구였던 소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교수는 이처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 일감에서 눈을 떼지 않는 '찍소 정신' 을 실천했다. 열악한 국내 연구 환경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 하늘을 감동시키자"며 세포복제 연구에 성공,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길을 열게 했다.

하지만 황 교수의 이런 연구에 대한 열정이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복제인간을 만들어내 환자 치료가 끝나면 그 복제인간을 죽이는 길을 열 것"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복제가 아닌 세포복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연과 신문지면을 통해 알렸다.

황 교수는 그럼에도 진정한 생명윤리를 고민했다. "복제연구는 난치병 치료의 열쇠를 제공해 고통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사회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생명윤리"라며 그는 "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생명공학 연구가 21세 '바이오 코리아' 를 향한 거대한 출발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간 '감자바우' 촌놈이란 걸 은근히 자랑으로 여긴 최재천 교수. 그는 졸지에 진짜 촌놈(?)인 황 교수와 나란히 글을 쓰려니 홀연 자괴감이 든다고 엄살을 피우며 얘기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자칭 문학 소년이 생각 없이 이과로 편성돼 재수 끝에 동물학과에 2지망으로 턱걸이해 붙은 사연 등 공부와 담쌓고 살던 그가 하루살이 권위자였던 미국 교수를 천사로 맞이하게 되면서 동물사회학자로 태어나는 계기가 흥미롭다. 1주일 넘게 미국인 교수의 조수가 돼 전국의 개울들을 뒤진 청년 최재천. 미국 교수가 돌아가기 마지막 날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관광도 한번 못하시고 물에만 첨벙거리고 가시나요?"

"하루살이를 연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당신 나라는 백두 번째 나라입니다."

그 순간, 최 교수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참 팔자 좋게 놀고먹는 영감님도 있구나' 했던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단다. 이후 그는 어려서 멱을 감던 고향 강릉비행장 옆 냇물로 '귀소본능' 이 느끼게 됐고, 생명 그 자체였던 강릉을 향해 다시 대관령을 넘었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그는 "알면 사랑한다"며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한없이 행복한 촌놈"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김병종 교수는 선적(禪的)인 단상들을 붙여 생명에 대한 회화들을 대거 책에 실었다. "생명있는 것들은 저희들끼리 삶을 노래한다. 차별이 없고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등 생명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그림과 짧은 글을 담아 가슴으로 전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내게 생명이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의 순한 눈망울, 봄이면 샛노란 솜털이 개나리보다 탐스러운 병아리, 암탉이 막 낳은 따뜻한 달걀, 그런 자연에 기대 살아가던 내 부모형제와 이웃들 … 생명은 그런 것이다.'

전문가 서평

내 인생의 사과나무
김성주 지음 | 9천원 | 더북컴퍼니 펴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친숙한 과일 중 하나가 사과일 것이다. 신화나 동화는 물론 과학, 정치에 이르기까지 사과는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서 고르게 등장한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고 한 스피노자의 말이나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고 한 어떤 가수의 노랫말도 사과가 현재 보다는 미래, 어둠 보다는 빛의 입자를 함유한 향기로운 과일이기 때문이다.

흙냄새라고는 맡아 볼 수 없는 회색도시에 때 아닌 사과 향기가 진동한다. 절망과 좌절, 시련과 역경을 자양분 삼아 아름답게 익은 사과들이 <내 인생의 사과나무>라는 한 광주리의 책에 담겨 나왔다. 병충해가 극심한 마천루의 골짜기에서 소음과 분진을 먹고 자란 사과들이기에 그 향기가 더 달콤하다.

"사랑의 사과나무, 나눔의 사과나무, 도전의 사과나무, 희망의 사과나무, 모양은 제각각 달랐지만 자갈밭이거나 콜타르를 덕지덕지 칠한 아스팔트에서 자라난 사과나무"였기에 그 열매는 더욱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과 꽃처럼 감미로운 감동을 전한다.

매주 토요일 9시45분에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의 <사과나무>를 진행하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사과나무>에 출연했던 17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묶은 <내 인생의 사과나무>는 휴머니즘의 승리를

회색도시에 퍼진 희망의 사과향기

엮은 각색 없는 원문이다. 김성주 아나운서는 그 자신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6전7기의 꿈을 이룬 도전의 사나이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악착같은 생의 근성보다는 봄에서 가을까지 사과가 익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땀 냄새가 묻어 나온다. 그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의 이야기가 씨앗이 돼 자라나기를 바란다"면서 책을 썼다.

이 책은 필자 자신의 이야기인 '나의 사과나무, 어머니' 로부터 <사과나무> 첫 출연자로 말기암 환자인 서옥경씨 이야기, 그리고, 고통 받는 전 세계 어린이의 어머니 김혜자, 정치인 노회찬, 산악인 염홍길, 목숨 같은 시를 쓰는 돌시인 박진식씨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들은 힘들고 지칠 때 마다 기대고 의지해온 '내 인생의 사과나무' 를 소개하며 희망과 도전의 정신을 북돋워 주고 있다.

"김훈씨의 사과나무는 '밥' 이다.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그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고, 글을 쓴다. 그렇게 나온 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밥이 되어주었을까." <칼의 노래>의 소설가로 '밥벌이가 지겨운 사내' 라고 자신을 일컫는 김훈을 소개한 글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게 읽히고, 오래 그 여운을 음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과나무를 찾다가 보니, 어느새 그 자신이 사과나무가 된 김성주 아나운서의 맑고 때 묻지 않은 '사과 향기' 가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말기암 환자로 남편에게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주고 싶어 했으나, 고통 속에 그대로 죽어 간 서옥경씨의 사과나무는 '미역국' 이며, 히말라야 15좌를 완등한 산악인 염홍길의 사과나무는 그 산에서 죽어간 동료들이다. 온갖 병충해와 재해에 시달려 때로 낙과로 뒹굴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밭에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려는 착한 사람의 노력이 우리시대의 우울모드를 희망의 모드로 바꿔준다.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불자들을 위한 난방기 특별보급 지상 이벤트
• 특별보급기간 : 2004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연화1호 SBH-12000TSI
● 발열량 : 10,000~12,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난방면적 : 22평 ● 연료소비량 : 1.21~1.46ℓ/h
● 외형치수 : 950×305×1,180mm ● 작동확인 LCD창
● 리모콘조절 ● 사용전원 220V 60Hz ● 미니 소음기 및 연통
~~가격:780,000원~~ 특별보급가:690,000원

연화2호 SBH-16000TMI
● 발열량 : 14,000~16,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난방면적 : 32평 ● 연료소비량 : 1.70~1.94ℓ/h
● 외형치수 : 950×305×1,350mm ● 작동확인 LCD창
● 리모콘조절 ● 사용전원 220V 60Hz ● 미니 소음기 및 연통
~~가격:880,000원~~ 특별보급가:790,000원

연화3호 SBH-11000TRI
● 발열량 : 7,000~11,000kcal/h ● 탱크용량 : 40ℓ
● 난방면적 : 22평 ● 연료소비량 : 1.80~1.26ℓ/h
● 외형치수 : 838×452×1,025mm ● 리모콘조절
● 사용전원 220V 60Hz ● 무게 :35kg
~~가격:780,000원~~ 특별보급가:690,000원

연화7호 SCG-1012HG
● 발열량 : 4,500~10,000kcal/h
● 중량 : 13kg ● 가스소비량 : 0.38kg/h
● 난방면적 : 25평 ● LPG용 / LNG용
● 외형치수 : 410×500×685mm
~~가격:285,000원~~ 특별보급가:230,000원

연화8호 SCG-2001P
● 발열량 : 10,000kcal/h ● 중량 : 27kg
● 가스소비량 : 0.54~0.87kg/h
● 난방면적 : 25평 ● 사용연료 : LPG
● 반사판 : 고강도알미늄(ø950mm)
~~가격:860,000원~~ 특별보급가:560,000원

제조사 : 신일산업(주)

설치장소
연화 세라믹원적외선 석유열풍히터는
심플한 외관과 저렴한 비용,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최적의 제품입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